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참가신청 안내

존경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2021년 2월 18일(목), 19일(금) 양일간 원주 인터볼고 호텔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으로 인해 소중한 일상을 잃어 버렸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수인 지역주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건강을 넘어 지역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감소로 인한 경제불황의 상충적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의 확대와 국가부채 증가 등의 문제는 이른바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로서 비구조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있기에 하나의 단일한 방법(one best way)으로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론의 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숙성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학회 모든 회원님들께서 노력하신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 중심의 공전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스스로 자전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공전과 자전을 조화롭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할지, 어떻게 지역의 취약한 권한과 편향된 대표성을 극복할지, 어떻게 주민의 삶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2021년도 동계 학술대회의 주제를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동계대회를 통해 진흥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마냥,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역 감수성과 생명, 공존에 대한 성찰을 통해 실천적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와 열정적인 토론과 고민이 대한민국의 자치의 싹을 틔우고, 분권의 꽃을 피워 안전한 지방자치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문 병 기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박 기 관

| 대 회 주 제 |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실현”

| 관련주요세션 |

-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실현
- 남북접경지역 협력과 DMZ 평화문화관광 활성화
-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행정의 변화
- 지방정부 30년의 성과와 과제
- 지방의회 30년의 성과와 과제
- 지역 거버넌스와 지역경제
- 주민자치의 진단과 실천적 대안
- 학계의 기본연구와 관심사항 및 신진 행정학자 발표 등

| 일 정 | 2021년 2월 18일(목) ~ 19일(금)

| 장 소 | 원주 인터볼고 호텔

| 참 가 신 청 | 2021년 01월 04일(월) ~ 22일(금)

| 원고제출마감 | 2021년 01월 29일(금)

| 연 락 처 | 본 학회 사무국 02-567-3372 (kalgs@kalgs.or.kr)

2020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

김용운 교수(건국대) 010-3860-3056 (yongwoonk@gmail.com)

김찬우 교수(금강대) 010-6206-2267 (chanwukim@gmail.com)

박상철 교수(영남대) 010-7337-5103 (scpark@ynu.ac.kr)

박정호 교수(상명대) 010-6673-6666 (fulled@smu.ac.kr)

- 학술대회 참가 신청은 사무국 이메일(kalgs@kalgs.or.kr)로 신청을 받습니다.
- 논문발표, 사회, 토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발표일 경우 주발표자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신청자께서는 신청하실 때 토론자 2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회 주제와 주제 이외에 일반 논문 발표 신청도 환영합니다.